

화그비 유그치



고소한 행복을 뷰아 마음을 전하다

+ 행주농가사업단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빛바람>은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음식에서 참기름, 들기름, 참깨를 빼놓고 완성을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고양에는 고소한 향에 이끌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네 식탁을 완성시키는 '행주농가사업단'이 있다. 정성과 경험으로 갈색병에 진심을 담고 있는 행주농가사업단의 인생2막이 궁금해졌다.



누구나 안심하는 재료

고양시니어클럽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다. 발걸음이 이끄는 곳은 '행주농가사업단'이 위치한 2층. 어르신들은 마침 나온 생들기름 병에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실버들의 일터이다. 총 10명의 인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인 재료를 제조하기 때문에 위생은 철저하게 관리된다. 어르신들은 먼저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손 소독을 한다. 이어 탈의실에서 위생복과 위생모자, 앞치마, 팔 토시를 착용하고 장화로 갈아 신으면 준비가 끝난다. 신고 들어왔던 실내화는 다시 장화가 있던 곳에 넣어 두어 소독한다. 아주 작은 먼지, 머리카락 하나 작업공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다.